

3. 탐라(耽羅) 창생(創生)의 땅 모흥(毛興)굴⁴⁾

◎ 모흥(毛興)은 삼을나(三乙那)가 솟아난 땅

◎ 삼성혈(三姓穴)은 정조(正祖) 때 사액(賜額)이 내리면서 부터

삼성혈(三姓穴)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사적지(史蹟地)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외국 사람이라도 제주도를 다녀간 사람이면 거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막상 삼성혈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 내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곳은 원래 “모흥굴[毛興穴]”이라고 했다. 금세기에 들어 와서도 60대쯤 이상된 사람이면 삼성혈보다는 모흥굴이 더 귀에 익은 이름이다. “모흥(毛興)”은 “을(乙)+삼(三)” 즉 “세 을나(乙那)가 함께 일어난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한라일보』 12호 (1989. 05. 06).



삼을나(三乙那)가 솟아 나왔다는 신화의 땅 모흥혈(毛興穴) | 지금 그 구멍은 매몰되고 패인 자욱만 남아 있다.

모흥굴의 신화(神話)는 너무나 유명하다. 『고려사』·지리지나 『탐라지(耽羅志)』 등 많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탐라 창생(創生)을 말해주고 있다.

진산(鎭山)[한라산의 별칭] 북쪽에 굴이 있는데 모흥(毛興)이라는 곳이다. 애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이 땅에서 세 신인(神人)이 솟아 나왔다. 그들은 사냥을 하여 짐승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 껍질이 떨어 머물었다. 그들이 달려가 열어보니 그 속에서 사자(使者)와 함께 세 처녀가 나왔으며 송아지, 망아지, 오곡 씨앗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자는 “우리 임금[일본과 벽랑국(碧浪國)]실께서 세 공주를 보내셨으니 부디 혼인하시고 건국의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떠났다. 그들은 세 공주와 각각 짝을 지어 혼인하고 좋은 터를 잡아 살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제주도에 인간 사회가 열리게 되었다.



! 삼성혈(제주시 이도1동) ! 탐라시조 삼을나(고을나 · 양을나 · 부을나)가 일어난 곳이라는 모험혈은 1785년 정조가 삼성사로 사액하면서 삼성혈로 부르게 되었다.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134호로 지정됨.

이 설화는 기록에 따라 누가 먼저 나오고 터 잡은 순서에 있어 “고(高) · 양(梁) · 부(夫)” 또는 “양(梁) · 고(高) · 부(夫)” 등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늘날 큰 쟁점(爭點)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해석에 있어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異見)을 드러내고 있다.

사적지(史蹟地)가 된 배경

이 신화의 땅이 오늘과 같은 사적지(史蹟地)가 된 배경을 보면 1526년(중종 21) 당시 목사(牧使)였던 이수동(李壽童)이 이곳에 혈비(穴碑)와 제단을 마련하고 주위에 담장을 둘러 홍문을 세우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 뒤로 1698년(숙종 24)에는 목사 류한명(柳漢明)이 삼을나묘(三乙那



! 삼성혈 비 ! 1526년 이수동 목사가 처음 세웠으나, 그 비는 없어지고 지금의 비는 후면에 “송정후사병진하 개수”라고 새겨 있다. 즉 1856년(철종 7) 여름에 고쳐 세웠는데, 대정현감을 지낸 고성규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廟[지금의 삼성전(三聖殿)]를 세우고 1772년(영조 48)에는 목사 양세현(梁世絢)이 제단 밖으로 담장을 쌓아 소나무를 심는 등 오늘의 경내를 조성하고 제전(祭田)을 두어 향청(鄉廳)에서 주관하는 건시대제(乾始大祭)를 올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로 이어지는 혈제(穴祭)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도 해마다 12월 10일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대표가 헌관이 되어 혈제를 받들고 있으며 4월 10일과 10월 10일에는 삼성(三姓) 후손이 제관이 되어 춘추대제(春秋大祭)를 지내고 있다.

이곳을 삼성혈(三姓穴)로 부르게 된 유래는 1785년(정조 9) 정조대왕이 이 삼을나묘(三乙那廟)를 “삼성사(三姓祠)”로 개편(改扁)·사액(賜額)을 내리면서부터라고 하겠다. 이때 왕은 손수 제문(祭文)을 지어주고 교리(校



! 삼성혈 목사 비석군(제주시 이도1동) | 1526년 삼성혈의 비석과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 이수동 목사를 비롯하여 이형상, 양세현 등 삼성사 건립과 보존에 공이 많은 목사 비석 7기가 건신문 서쪽에 서있다.

理) 고택겸(高宅謙)을 예관으로 내려 보내 제를 봉행토록 하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 27)에는 목사 이행교(李行敎)가 전사청(典祀廳)을, 1849년(헌종 15)에는 목사 장인식(張寅植)이 숭보당(崇報堂)을 창립했다. 그러나 1871년(고종 8) 전국에 내렸던 사우철폐령(祠宇撤廢令) 때는 이 삼성사도 무사할 수가 없었다. 이때 선조의 위판을 지키고 다시 사당을 재건하려던 후손들의 투지는 지금도 삼성인의 귀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처음 삼을나(三乙那)의 위판은 고행간(高行侃), 양성연(梁成演), 부인행(夫仁行) 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고행간의 아들 처련(處連)은 자기 집에 별당을 짓고 봉안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84년(고종 21)에는 고행간, 양성연, 부희로(夫熙魯) 등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삼

성사 재건을 피하다가 탄로되어 호된 벌을 받았다. 이때 부회로는 강직한 성품으로 초지를 굽히지 않고 항거하다가 마침내 순사(殉死)했다. 지금 경내에는 목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공적비와 더불어 그의 순사비(殉死碑)가 서있다.

삼성혈의 비밀은...

삼성혈 수난에 얽힌 이야기는 그보다 앞서 1838년(헌종 4)에도 있었다. 당시 목사였던 이원달(李源達)은 남달리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땅에서 세 사람이 솟아 나왔다고 했으니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못한 그는 마침내 그곳을 파보도록 명령했다. 뜻밖에 놀란 것은 삼성 후손들이었다. 고사정(高泗澄)을 비롯한 유생(儒生)들이 객사에 몰려가 이른바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 때 권력도 대중 데모 앞엔 약했는지 이 발굴 기도는 결국 중단되어 이 목사의 궁금증은 영원히 미궁에 묻히고 말았다.

삼성혈의 궁금증은 비단 이목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초대 박물관장을 지낸 김재원(金載元) 박사를 필자가 안내하여 이곳을 돌아본 일이 있다. 그도 “한번 발굴해 보았으면...”하는 것이었다. 옆에 섰던 필자가 놀라 “말씀 조심 하십시오”했다. 둘이서 웃고 넘겼지만 이 충동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함께 지니고 있는 관심사라고 하겠다.

동굴 유적지인가, 수혈(豎穴)주거지인가, 아니면 또 무슨 ... 삼성혈의 비밀은 언젠가 벗겨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인가.

삼사석과 삼사석비(제주시 화북1동) | 고·양·부 3신인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쓴 화살이 박혔다는 삼사석이 1813년 양종창이 지은 석실 안에 있다. 왼쪽은 삼사석비로 1930년 고한용 등이 1735년 김정 목사가 세웠던 비를 묻고 새로 세운 것이다. 1998년 김정 목사가 세웠던 비가 현 삼사석비 서쪽에서 발굴되자 이 비를 삼성혈 경내로 옮겨 세웠다.



혼인지(성산 온평리) | 삼성혈에서 나온 탐라의 시조 고·양·부 3신인이 동쪽 바닷가에 밀려온 함 속에서 나온 세 공주와 혼례를 올렸다는 큰 연못.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됨.

혼인지 옛 표식(성산 온평리) | 1970년 온평리 출신 강달수가 건립. 현재 상단 부위가 파손된 채 '벽랑국삼공주추원비' 옆에 보존되어 있다.